

‘엘로우시티 장성’ 과수전정단 출동

자체 육성 전정전문가 62명 활동 시중 전정비용보다 10~15% 저렴

장성군이 자체 운영해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과수전정단’이 올해에도 대활약을 예고했다.

군에 따르면 ‘엘로우시티 장성 과수전정단’ 1·2기 수료자들로 구성된 과수전정단 62명이 부자농촌 실현을 위해 현장에 뛰어든다.

‘전정’은 과일나무의 불필요한 가지를 솎아내는 작업을 일컫는다. 과일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작업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숙련도와 전문성을 요한다. 하지만 농업인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전국 대다수의 농가가 전정 작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장성군은 직접 전정전문가를 길러내기 시작했다. 군은 민선 7기 공약사업에 ‘엘로우시티 장성

전정전문가 육성사업’을 포함시키고, 2018년 1기 양성교육을 시작했다.

교육생은 1년 동안 20회 내외의 이론 및 실습교육을 통해 전문지식과 필수 기술을 습득한다.

교육과정 수료 후에는 엄격한 자격 시험을 거치며, 합격자에 한해 ‘과수전정단’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지금까지 2기에 걸쳐 62명(감 31명, 사과 31명)의 전정전문가가 배출됐다. 현재 3기 40명이 교육 중에 있다.

지난해, 과수전정단은 시범운영을 통해 40농가 8.9ha 규모의 전정 실적을 올렸다. 작업의 완성도가 높고, 시중 전정가격보다 10~15% 가량 저렴해 농가의 호응이 높았다.

올해 추진기간은 오는 2월부터 3월



까지 2개월로, 총 40회에 걸쳐 40ha 규모로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정작업 신청은 이달 29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장성군은 고령 농업인(만 70세 이상), 여성 농업인, 질병 등으로 인해 적기 전정이 어려운 농가를 우선 선발할 방침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전정전문가 자체 양성으로 외부 인력 의존도를 낮추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있어 매우 긍정적”이라며 “올해에도 농가의 전정 부담 경감과 수확량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담양군, 무인민원발급기 신청 서비스 확대 고용·산재 보험 증명서 16종·여권사실증명서 6종 추가

담양군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를 22종 추가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발급서류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증명서 등 16종과 외교부의 여권 발급기록증명서 등 6종이다. 이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종전 90종에서 112종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발급 건수는 26만 657건으로, 작년 동기(15만 388건)보다 58%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

기 실천과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재난지원금 신청 등에 따른 비대면 증명서 발급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현재 담양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담양군청, 고서면, 창평면, 대덕면, 수북면, 대전면으로 모두 6대다.

군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가 확대되면서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코로나19 시대에 민원 대기시간과 대면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나주시,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 대상자 22일까지 모집



체 활동을 희망하는 5인 이상 공동체 - ‘새싹’(10인 이상의 공동체)· ‘열매’(새싹 다음 단계)로 나뉜다.

나주시 관내 거주하는 5인 이상의 공동체 또는 단체 누구

나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설명과 문의는 공익활동지원센터 누리집 게시 영상을 참조하거나 블로그, 유선(☎061-337-9903)을 통해 하면 된다.

또 모집 기간 내 센터를 방문하면 개인, 공동체별 사업 목표 및 계획 수립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최종 사업대상자는 1차 나주시 심사 후 전라남도 최종 심사 과정을 거쳐 내달 20일 경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소영 센터장은 “주민과 마을이 중심이 된 다양한 공동체를 발굴해 마을의 성장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온라인 사업설명회 및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마을 행복 공동체 실현을 위한 밑그림을 그려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

화순군, 신규 강소농 농업경영체 모집

다음달 19일까지 접수...농가경영개선 역량강화

화순군이 우수한 역량을 가진 강한 농업인 육성을 위해 2월 19일까지 2021년 신규 강소농 지원 대상 농업경영체를 모집한다.

강소농은 경영 규모는 작지만, 경영혁신을 실천하며 생산 비용 절감, 품질 향상, 고객 확대 등 경쟁력을 키워가는 ‘작지만 강한 농업인’이다

화순군에 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정년 영농정착 지원 사업 대상자, 청년농업인, 귀농, 창농과 신규 농업인으로 중소규모 농업 경영체이면 신청할 수 있다.

강소농에 선정되면, ·역량 개발, 경영개선을 위한 기본, 심화, 후속 교육·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경영 진단, 전문기술 등 맞춤형 현장 컨설팅·농가경영 실천 노트·자율 모임체 활동 등을 지원한다.

신청서는 이메일(phj6788@korea.kr)로 제출하거나 화순군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화순군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하면 된다.

신청자는 강소농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선정된 이후 강소농 관련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역량개발팀(061-379-5451)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을 갖춘 농가를 발굴·지원해 농업인의 자립 역량을 높이고 소득 증대 효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군은 지난 2011년부터 총 422개 농업경영체를 강소농을 선정해 지원해 왔다.

화순=박순철기자



곡성군, 농림축산분야 74가지 보조사업 추진

곡성군이 올해 농업정책, 축산경영, 원예과수 등 14개 분야 74개의 농업분야 보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업정책 및 친환경농업 분야에 농번기 마을공동육성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 △유류양장 및 농식품가공 분야에 농산물 품목별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 등 9개 사업, △미래농업 분야에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축산경영 및 가축방역 분야에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사업 등

21개 사업, △산림분야에 산림소득사업, △원예·과수 및 농기계지원 분야에 시설원에 현대화 사업 등 14개 사업, △화훼·작물 분야에 채소류 장애 및 병충해 진단 기술지원사업 등 5개 사업 등을 추진한다.

신청기간은 사업별로 상이하다. 해당 사업의 신청기간에 도래할 때마다 곡성군 홈페이지, 읍면 사무소 등을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신청기간을 확인해 거주지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곡성=양해영기자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균 <도문대작>

